

광주시 “공공배달앱 홍보·편리성·품질 강화”

꽃시장,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업체 “소비자 맞춤형 지원책 절실” 점유율 10% 올리기 캠페인 검토 부가서비스·영업조직 강화 주문도

‘지자체 공공배달앱’ 현실을 다룬 본보의 일주이슈 보도(본보 2024년 7월29일 1면, 2면, 3면) 이후 광주시가 공공배달앱 현장 간담회를 실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 공공배달앱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인 광산구 신창동 한 음식점에서 소상공인·소비자 등과 ‘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음식점은 광주시 공공배달앱인 ‘위

메프오’와 신한은행 ‘뽕겨요’ 입점업체다.

이날 간담회는 강 시장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소통의 연속된 행보로 지난 23일 ‘소상공인과의 대화’, 26일 ‘경제계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 현장 소통이다.

간담회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김현성 광주경제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하재욱 위메프오 대표 △홍진호 신한은행 ‘뽕겨요’ 사업단 팀장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김상재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부 회장 △김태훈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이영숙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장 △김광호 뜨래찬 대표 △진광중 백죽발 대표 △김창수 점담돌술갈자탕 대표 △백승호 카페잇샌드 금남점 대표 △문유성·조성배 광

주 공공배달앱 소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강 시장과 참석자들은 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필요성과 개선점,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에 △공공배달앱 홍보 강화 △소비자 부가서비스 지원 △편리성·품질 강화 △공공배달앱 영업조직 강화 등을 주문했다.

광주시는 ‘배달의 민족’ 중개 수수료 인상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등 의견을 수렴했다.

김광호 뜨래찬 대표는 “광주시 공공배달앱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편리성과 품질 두 가지 모두 확보하는 앱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등을 빠르게 파악해 그에 맞는 시스템과 지원을 해주는 것이 광주시와 공공배달앱의 할 일이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주시, 공공배달앱, 소상공인·가맹점, 소비자 등 4곳에서 각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할 시기”라며 “오늘 현장 간담회를 바탕으로 광주시 공공배달앱을 다시 디자인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성 광주경제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공공배달앱 점유율 10% 올리기 캠페인을 소상공인 등과 함께 한다면 광주의 성공사례가 전국 대표 사례로 자리잡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광주시 공공배달앱은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 수수료를 2%로 설정해 경영 부담을

대폭 줄이고 소비자에게 만족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배달 중개 수수료의 경우 △광주시 공공배달앱(‘위메프오’, 신한은행 ‘뽕겨요’) 2.0% △요기요 12.5% △쿠팡이츠 9.8% △배달의 민족 6.8%→9.8%(8월 인상 예정) 등이다.

광주시 공공배달앱인 ‘위메프오’와 신한은행 ‘뽕겨요’는 현재까지 1만1000여개 가맹점, 누적 주문 138만건, 누적 매출액 345억원을 올렸으며,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42억원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강 시장은 현장 간담회 참석에 앞서 광주시청 1층 소비생활센터를 방문,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광주지역 소비자 피해 상황, 구제절차 등을 점검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 “디지털배움터에서 무료 교육 받으세요”

키오스크 등 실생활 중심교육

광주시는 오는 12월12일까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시민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4년도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실시한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보편적 디지털 접근권 보장’이라는 배움터 고유 목적에 집중해 스마트폰 어플 활용, 키오스크 등 디지털 실생활 중심 교육을 추진한다.

실생활 역량교육 과정으로는 △본인인증 및 공공서비스 △금융 및 피싱 예방 △인공지능(생성형 AI) △실생활 디지털 활용 △온라인 콘텐츠 제작(사진, 영상 등) 5가지 주제의 기본 역량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 챗GPT, 인공지능(AI) 윤리 등 실생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비중을 높이고 디지털 의료 및 헬스케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올해 상설 디지털배움터로 △태봉노인복지관(북구 신안동)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광주전남지부정보화교육장(동구 장동) 등 2개소를 선정했다.

상설 디지털배움터는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배울 수 있도록 상시 운영되는 디지털 교육 장소다. 이곳은 실생활 디지털 교육과 생활 속 자주 겪는 디지털 문제를 도움 받을 수 있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또 디지털배움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디지털 역량교육의 수요가 많은 단체(경로당, 장애인복지관 등)로부터 교육을 신청 받아 디지털배움터 강사를 파견해 진행하는 파견교육도 실시한다.

디지털 교육을 받고 싶은 시민은 디지털배움터 누리집(www.디지털배움터.kr) 또는 콜센터(1800-0096)로 교육 신청하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노병하 기자



폭염에 확산하는 녹조

광주지역 낮 기온 34도를 보이며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31일 광주 서구 풍암호수공원에 녹조가 발생해 물빛이 녹색을 띠고 있다. 나건호 기자

바이오스마트그룹, 인재양성 위한 도서 기탁

바이오스마트그룹(박혜린 회장)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8000여권(1억원 상당)의 도서를 기탁했다.

31일 전남도청 귀빈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혜린 회장, 전성열 유니시스템 부사장,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1971년 설립된 바이오스마트그룹은 스마트솔루션, 에너지, 바이오, 문화콘텐츠 분야 등 12개의 계열사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다. 2019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200만원 상당의 도서와 화장품을 기부하는 등 나눔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날 바이오스마트그룹은 도서 기탁뿐만 아니라 전남 365 고향사랑 기부 캠페인 동참을 위한 기부금 기탁,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가입하는 등 전남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줬다.

박혜린 회장은 “전남 인재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에 기탁한 도서가 전남 청소년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인재양성에 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1일 바이오스마트 박혜린 회장으로부터 ‘바이오스마트’ 도서 8000여권 및 고향사랑 365기탁증서와 서포터즈가입 신청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정을 갖고 도서를 기탁해 주신 박혜린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후원해 주신 도서를 통해 전남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꿈을 키워나가도록도 내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학교 등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인재육성 후원금이 총 143억원이 모금되는 등 전남의 지역인재 양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과 후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https://www.jntle.kr)을참고하거나 전화(061-285-9465)로 문의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전남 전국 최초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서비스’ 호평

농관원·농어촌공사와 협업사례 불필요한 서류·방문 절차 생략

전남도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 본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진행한 ‘2024년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서비스’가 협업 으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지법 적용에 따라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한 필지를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3개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전남도는 농관원 전남지원, 농어촌

공사 전남지역본부와 ‘임대농지 원스톱 등록 서비스’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 간 복잡한 임대 농지 등록 절차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안내문 2만2000부를 제작해 배포했다.

농업인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을 한 필지는 별도의 서류 제출과 방문절차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직불금 신청을 하도록 운영했다.

그 결과 전년보다 농지대장 서류 발급은 6만건(25%) 감소했으며 농관원의 방문 민원도 8000명(13%) 줄었다. 만족도 또한 농업인 7.4점, 담당자 7.8점을 기록하며 편의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됐으며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정광현 전남도농축산식품국장은 “임대농지의 간편등록을 위해 지속해서 협업체를 확대 운영해 농업인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익직불금액 전국 1위, 농지면적 전국 1위를 자랑하는 농도 전남이 공익직불 업무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도혁 농관원 전남지원장 또한 “앞으로도 농업경영체 등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각종 행정정보 연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광주그린카진흥원 내 캐스퍼 전기차 전시 화제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지하 1층 홍보관 메인홀에 광주글로벌모터스 생산 캐스퍼 전기차를 전시하고 있어 차량구매를 원하는 수요층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31일 김 진흥원장은 “캐스퍼전기차 판매방식의 특성상 온라인 주문만 가능함으

로 인해, 현대자동차 오프라인 매장에서 어렵게도 캐스퍼 전기차를 찾기가 어렵다”면서 “현대차 및 광주글로벌모터스의 협조로 진흥원 홍보관에 최근 사전계약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캐스퍼 전기차를 전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 누구나 전시차량을 보실 수 있도록 홍보

관을 개방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캐스퍼 전기차 홈페이지에서 사전 계약을 개시한 캐스퍼 전기차는 사전 계약 물량이 1만대를 육박할만큼 판매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에서는 진흥원 외에도 현대자동차 월산 대리점에서 전시 중이다. 노병하 기자